현대차·기아,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21조원 투자

현대차와 기아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원을 투자, 올해 35만대로 예상되는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2030년 144만대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아는 전기차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오토랜드 화성에 연간 최대 15만대 생산 능력을 갖춘 신개념 PBV 전기차 전용공장도 신설키로 했다. 사진은 기아 오토랜드 화성 EV6 생산 라인. 〈기아 제공〉

기아는 중장기 전략 'Plan S'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와 결합된 PBV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2025년 선보일 전용 PBV 라인업의 최초 모델 SW(프로젝트명)을 비롯해 라인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아 PBV 라인업 콘셉트카. 〈기아 제공〉

목적 기반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차급별 다양한 플랫폼 개발
연간 생산량 144만대로 대폭 확대…글로벌 생산량의 45%
글로벌 미래 자동차사업 혁신 선도 '허브' 역할 강화 포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올해 35만대로 예상되는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2030년 144만대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는 2030년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 323만대의 45%에 달하는 물량으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고도화와 글로벌 미래 자동차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양사의 설명이다.

이밖에 기아는 전기차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오토랜드(AutoLand) 화성에 수천억원 규모를 투입, 연간 최대 15만대 생산 능력을 갖춘 신개념 PBV(목적 기반 차량) 전기차 전용공장도 신설키로 했다.

◇국내 PBV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글로벌 PBV 시장 1위 도전=18일 기아에 따르면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 신설될 국내 최초 신개념 PBV 전기차 전용공장은 'EV 트랜스포메이션'을 상징하는 대표적 미래 자동차 혁신 거점이다.

PBV 전기차 전용공장은 약 2만평의 부지에 수천억원 규모를 투입해 2023년 상반기 착공,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산 시점에 연간 10만대 생산 능력을 확보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맞춰 최대 15만대까지 확장한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PBV 전기차 전용공장에 대해 "글로벌 PBV 시장 1위 브랜드에 도전하는 기아 'Plan S'의 하나의 큰 축"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파생 PBV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용 PBV와 자율주행기술을 앞세워 전 세계에 PBV 공급 물량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아의 PBV 전기차 전용공장은 미래 혁신 제조 기술을 대거 적용하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공장으로 구축된다. 디지털 제조 시스템 등 현대차·기아의 스마트팩토리 브랜드 '이포레스트' 기술로 효율화와 지능화도 추구한다.

기아는 중장기 전략 'Plan S'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와 결합된 PBV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2025년에 선을 보일 전용 PBV 라인업의 최초 모델 SW(프로젝트명)는 중형급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성인 키 높이에 이르는 넓은 실내공간에 뛰어난 적재성까지 갖춰 딜리버리(Delivery), 차량호출(Car Hailing), 기업 간 거래(B2B) 등 각종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는 이후 음식, 생활용품 배송에 최적화된 무인 자율주행 소형 사이즈 PBV, 일반 물류, 신선식품 배송, 다인승 셔틀로 활용이 가능한 대형 사이즈 PBV까지 라인업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차세대 제품 및 선행기술, 인프라…국내 전기차 생태계 고도화=이날 현대차와 기아의 발표를 보면 21조원의 투자 범위에는 전기차 생산 능력 확충과 전용 전기차 라인업 다양화 및 부품·선행기술 개발, 인프라 조성, 전기차 관련 다각도의 신사업을 모색하는 전략제휴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PBV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이외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혼류 생산 시스템 점진적 구축, 기존 공장의 전기차 전용 라인 증설 등을 추진한다.

전기차 생산 혁신과 최적화 차원에서 현대차그룹의 미래 제조 혁신기술 인큐베이터인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의 유연 생산 시스템, 맞춤형 물류 시스템, 디지털 제조 시스템 등을 국내 공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대차·기아는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및 제품 라인업 확대, 핵심 부품 및 선행기술 개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개발에도 집중 투자하는 것은 물론, 협력사와 함께 국내 기술 개발도 활성화한다.

전기차의 원천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 차세대 플랫폼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2025년 도입하는 승용 전기차 전용 'eM' 플랫폼을 비롯해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IMA) 체계 하에서 차급별 다양한 전용 플랫폼들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의 핵심 기반인 전기차 충전 솔루션, 고객 서비스 등 인프라 부문도 투자 항목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업체들이 내연기관차 시대를 주도했던 과거와는 달리 전기차 시대에는 경쟁 업체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능과 가치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이자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2030년까지 18종 이상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총 323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12%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포함 2030년까지 18종 이상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출 예정이다. 올해는 아이오닉 6를 필두로 2024년에는 아이오닉 7이 출시된다. 기아는 13종의 전기차를 출시한다. 올해 EV6의 고성능 버전인 EV6 GT에 이어 내년에는 EV9을 선보인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1분기 8조 손실' 한전 "6조대 재무 개선할 것"

긴급 비상대책위서 자구책 마련…KDN 등 출자지분 8000억 매각

올해 1분기 8조원에 가까운 최대 규모 영업손실을 낸 한국전력이 18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그룹사들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자구책을 마련했다.

한전KDN 등에 대한 출자지분 8000억원을 매각하는 등 총 6조원에 달하는 재무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승일 한전 사장과 한전KPS,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등 11개사 사장단이 참석했다.

이들 전력그룹사는 약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목표로 발전연료 공동구매 확대, 해외 발전소 및 국내 자산 매각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을 밝혔다.

우선 발전사의 유연탄 공동 구매를 확대하고, 발전 연료 도입선을 다양화하는 등 다각적인 전력 생산원가 절감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기 계약 선박의 이용을 확대하고 발전사 간 물량 교환을 통해 수송 비용과 체선료 등을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자회사 지분 중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만 남기고 대부분을 매각해 8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전기술 지분의 일부(14.77%)를 매각해 4000억원을 확보하고, 한전KDN 등 비상장 자회사 지분은 정부와 협의해 상장 후 매각을 추진한다. 한국전기차충전 지분은 즉시 매각할 예정이다.

그외 국내 특수목적법인(SPC)는 경영 진단 후 효율화 과정을 거치거나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각 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원칙하에 보유한 부동산을 조기 매각해 7000억원을 확보한다.

먼저 의정부 변전소 부지 등 한전이 보유한 3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15개소와 그룹사가 보유한 10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0개소를 즉시 매각하고, 기타 부동산도 추가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또 운영·건설 중인 모든 해외 석탄 발전소를 매각하는 등 해외 사업 재편을 통해서도 1조 9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해외 석탄발전소도 단계적으로 철수를 추진하며 일부 가스 발전사업 매각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한전은 안정적 전력 공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상 경비를 30% 절감하고 투자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등 긴축 경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면세 경유값 40% 급등…전남 농가 '우크라 불똥'

농협 전남본부, 수급현황 점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도 뛰면서 농가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남지역 주유소들이 판매하는 면세유 가운데 휘발유 평균 ℓ당 가격은 1307.29원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선포한 지난 2월 24일(998.69원)보다 30.9%(308.6원) 급등했다.

같은 기간 농업인이 많이 쓰는 면세유 경유 가격은 1037.05원에서 1450.29원으로, 39.8%(413.24원) 뛰었다.

등유 가격은 1005.91원에서 1262.96원으로, 25.6%(257.05원) 상승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국제 유가 급등이 면세유 가격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농협 주유소를 대상으로 면세유 수급현황 점검과 현장 지도에 나섰다.

농기계 사용이 잦아지는 영농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면세윳값 급등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가 우려된다. 또 외국인 인력 부족에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이중고가 가중되고 있다.

박서홍(오른쪽)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이 곡성 입면농협 주유소를 찾아 면세유 수급현황을 점검했다. 〈전남농협 제공〉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름에 따라 농가에서는 비료 가격 등 영농 자잿값 부담도 커졌다.

전남도는 농업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면세유 가격 상승분에 대한 지원금을 총 98억8200만원 배정했다. 이 지원금은 오는 6월 말까지 제공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 17일 열린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초기창업자 역량강화 교육'에서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 관계자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대기술지주회사, 초기창업자 역량강화 교육

'창업패키지 선정기업' 18곳 대상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주)(대표 민정준)는 지난 17일 광주시 서구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초기창업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지원하는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는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선정기업 18개사를 대상으로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및 특화 프로그램 안내, 멘토링,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밖에 IP제품혁신지원사업 소개(한국발명진흥회)와 세무회계관리 특강, 투자유치 전략, 지재권 확보 전략, 스타트업 창업 교육 등 초기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품형 교육을 펼쳤다.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주)는 올해 3년 연속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선정된 18개사의 초기창업기업에게 향후 10개월의 협약 기간 동안 시제품 제작과 지적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초기창업자 역량교육, 스타트업(Start-up) 시장검증 프로그램,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관계자는 "올해도 추가 펀드 결성 등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교내·외 창업지원 인프라와 유기적 연계하고 있다"면서 "초기창업기업이 안정적인 성장과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25.98 (+5.54)
↑	코스닥	871.57 (+5.59)
↑	금리(국고채 3년)	3.069 (+0.038)
↓	환율(USD)	1266.60 (-8.40)